

광주시민 금연·절주·걷기 등 건강관리 잘한다

‘2015 지역사회건강조사’

성인 건강생활 실천율

광주 33.2%·전남 21.9%

완도 흡연율 54% 최고 수준

광주시민들은 금연과 절주, 걷기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매우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지역의 경우 완도군민의 흡연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‘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’ 결과에 따르면 금연, 절주,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은 경남이 20.5%로 가장 낮았고 서울은 41.1%로 가장 높았다.

광주지역 건강실천 비율은 33.2%로 대전(38.1%), 대구(34.1%)등과 함께 높은 수준을 보였다. 하지만 전남지역은 21.9%의

